

# 선지서 해석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Ankur Lee-Vakil (Son-in-law)

제 4 강

##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 Millennium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http://www.thirdmill.org)

# 선지서 해석

## 제 4 강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

### 목차(Contents)

<b>I. 서론(Introduction)</b> .....	<b>1</b>
<b>II. 언약의 이상들(Covenant Ideals)</b> .....	<b>1</b>
A. 언약의 구조들(Covenant Structures)	2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y)	9
<b>III. 언약의 심판(Covenant Judgment)</b> .....	<b>10</b>
A. 심판의 유형들(Types of Judgment)	11
1. 자연계를 통한 심판(Judgment in Nature)	11
2. 전쟁을 통한 심판(Judgment in Warfare)	12
B. 심판의 과정(Process of Judgment)	13
1. 하나님의 인내(Divine Patience)	14
2. 증대되는 가혹성(Increasing Severity)	14
3. 특별한 절정(Particular Climax)	15
<b>IV. 언약의 복들(Covenant Blessings)</b> .....	<b>17</b>
A. 복들의 유형들(Types of Blessings)	17
1. 자연계에서의 복(Blessing in Nature)	18
2. 전쟁에서의 복(Blessing in Warfare)	19
B. 복들의 과정(Process of Blessings)	20
1. 은혜(Grace)	20
2. 정도들(Degrees)	21
3. 절정(Climax)	21
<b>V. 결론(Conclusion)</b> .....	<b>23</b>

# 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 제 4 강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Dynamics of the Covenants)

### I. 서론(INTRODUCTION)

여러분은 인간 관계에 기복(起伏)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친구 관계는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즐겁지 않다. 그 관계는 때로는 편안하고 때로는 불편하다. 이전 강의들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사절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사절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기복이 있음을 인식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주제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언약의 이상(理想)들을 탐구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언약의 심판, 곧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역했는지 검토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언약의 복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신 복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언약의 삶의 이러한 역학적 원리를 파악하면 구약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의 교회와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호와와 맺은 언약의 삶의 기본적인 이상들은 무엇이었는가?

### II. 언약의 이상들(COVENANT IDEALS)

여러분은 결혼식에 가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말하는 모든 멋진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남편/아내로 맞이하여,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있는 것.” 신부와 신랑이 이상(理想)보다 못한 서약으로 결혼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들으면 좀 이상(異常)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지만 당신이 병이 들면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당신의 나의 남편으로 맞이할 것이지만, 당신은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들의 결혼식에서

서로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한 쌍의 남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아해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의 시작이 이상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이다. 그것은 일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대로 되어 있는 때이다. 우리 모두는 그 부부가 관계가 이상적일 때 서로에게 말했던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같은 일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이상(理想)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이상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언약의 구조들이다. 두 번째 주제는 선지자들의 사역, 곧 어떻게 선지자들이 이러한 구조들에 의지했는가 하는 것이다.

### A. 언약의 구조들(COVENANT STRUCTURES)

이전 강의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들을 마치 고대 근동의 종주-봉신 조약의 본을 따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구약 시대에 강대국 황제들이 약소국들과 조약(곧 언약)을 맺곤 하였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러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한다. 황제들은 그들의 봉신국들과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의 정치적 협약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이상(理想)들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적어도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항상 종주-봉신 조약들에 나타난다.<sup>1</sup> 첫째로, 고대 근동의 조약들은 황제가 그의 봉신들에게 베푼었던 은택을 항상

---

<sup>1</sup>[역자 주]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20:1-17)이나 시내산 언약의 첫 부분인 시내산 언약 문서(출 20:1-23:33)나 [민수기의 보충적 준수 조항을 포함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전체 시내산 언약(출 20 장-레 27 장)이나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모압 언약(신명기 1-34 장)이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을 권면한 세겜 언약(수 24 장)은 주전 1400-1200 년 사이에 변성했던 종주국 히타이트와 속국들 사이에 맺은 종주권 조약문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힐과 월튼(Andrew E. Hill and John H. Walton, *A Survey of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1], 133)은 근동의 조약문과 구약의 언약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2 천년기	내용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24 장
-------	----	------	-----	-----------

주장한다. 그것들은 강대국 왕의 이름을 선언하고 그 왕이 그의 봉신국 백성을 위해 행했던 모든 중요한 일을 열거하는 역사적 서문으로 시작한다.<sup>2</sup>

히타이트 조약문서		레위기		
종주 소개	조약을 공포하는 권리가 있는 종주국 왕	출 20:1	1:1-5	24:1-2
역사적 서문	종주국과 속국과의 과거 관계 서술	출 20:2	1:6-3:29	214:2-13
준수조항	속국의 의무 열거	십계명 출 20:1-17 언약법 출 20:22-23:19 의식법 출 34:10-26, 레 1-25 장	4-26 장	24:14-25
문서 규정	문서보관과 주기적 낭독에 관한 규정	출 25:16(?)	27:2-3	24:26
증인	맹세를 증언할 신들	없음	31-32 장	24:22, 27
저주와 축복	조약 준수 여부에 따른 신(들)의 반응	레 26:1-33	28 장	24:20

<sup>2</sup> [역자 주 2] 시내산 언약(십계명)과 종주-봉신 조약문의 전문과 역사적 서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조약문	<i>ANET</i> , 203 (Treaty between Mursilis and Duppi-Tessub of Amurru) <b>Preamble</b> (# 1): "These are the words of the Sun Mursilis, the great king of the Hatti land, the valiant, the favorite of the Storm-god, the son of Suppliliuamas, the great king, the king of the Hatti land, the valiant."
언약문	출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조약문	<i>ANET</i> , 203 <b>Historical Introduction</b> (## 2-7): "Aziras was the grandfather of <u>you</u> , Duppi-Tessub. He rebelled against <u>my</u> father, but submitted to <u>my</u> father. . . . When <u>my</u> father became god and <u>I</u> seated <u>myself</u> on the throne of <u>my</u> father, Aziras behaved toward <u>me</u> just as he had behaved toward <u>my</u> father. . . . When <u>your</u> father died, in accordance with <u>your</u> father's word <u>I</u> did not drop <u>you</u> . .... <u>you</u> were sick ailing, but although <u>you</u> were ailing, <u>I</u> , the Sun, put <u>you</u> in the place of <u>your</u> father and took <u>your</u> brothers (and) sisters and the Amurru land in oath for <u>you</u> ."
-----	---

조약들은 항상 황제의 호의에 기초하였고, 황제가 베푼 호의라는 이 주제는 성경의 언약의 이상(理想)에도 그대로 나온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호의이다.

언약의 이상(理想)들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란 요소이다. 고대 세계의 모든 종주-봉신 조약이 황제의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했듯이, 구약의 모든 언약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충성의 반응이 언제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에 기초해서 그분의 백성과 언약들을 세우셨다. 그러나 예외 없이, 언약들의 이상들에는 항상 인간의 책임, 곧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라는 요구가 들어 있다.<sup>3</sup>

언약문	출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	---

<sup>3</sup> [역자 주] 준수조항

조약문	ANET, 204-205 <b>Stipulations(## 8-17) [Futur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 8 미래의 양국관계; Military Clauses ## 9-12 군사 문제; Dealings with Foreigners ## 13-17 외국인 문제)</b> "# 8 .... And just as I shall be loyal toward you, even so shall I be loyal toward your son. But you, Duppi-Tessub, remain loyal toward the king of the Hatti land, the Hatti land, my sons and my grandsons forever! .... Do not turn your eyes to anyone else!"
언약문	출 20: 3-17 10 가지 계명(일반적인 조항) [Merrill: + 출 20:22-23:33 구체적인 조항] [Walton: + 출 20:22-23:33 언약서 + 출 34:10-26, 레 1-25 장 의식법] [Stuart: + 출 20:18-23:19 + 출 25:1-31:18]

- 1) 종주권 조약문의 준수조항들(stipulations)은 미래의 양국 관계를 위하여 종주국이 속국에 이행토록 요구하는 규정들이며 일반적인 조항들과 구체적인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 2) 메릴(Merrill, "A Theology of the Pentateuch," in Zuck, e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33-35)처럼 시내산 언약 체결을 출 19-24 장에 국한하여 보면, 출애굽기 20:3-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상(理想)적인 요소들이 각각 어떻게 모든 구약의 언약에 들어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전 강의들에서 보았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섯 개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고 이해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포로기 이후 말일에 있을 미래의 새 언약 등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

아담 언약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라. 아담 시대에 하나님의 은택은 그분이 인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 가운데 드러났다. 그분은 거주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를 취하여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멋진 정원으로 만드셨다. 창 1: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1:2)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위해 낙원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낙원에 두셨다.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신

17 의 열개의 계명은 일반적인 조항에 해당하며,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 부분으로 언약서(the book of the covenant, 출 24:7)라고 부르는 출 20:22-23:33 은 구체적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십계명은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당위적(apodictic) 조항이며, 언약서의 조항들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적인(casuistic) 조항이다.
  - ②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출 24:3)”는 바로 일반 조항인 십계명(출 20:1-17)과 구체적 조항인 언약서(출 20:22-23:33)를 각각 가리키는 것이다.
  - ③ 여기에 쓰인 용어 “말씀(דְבָרִים 드바림)”이 다른 곳에서 십계명을 지칭하는데 쓰였고 “율례(מִצְוָה 미시파팀)”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법령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 3) 출 19-24 장의 범위를 넘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언약을 조약문과 비교하는 월튼(*A Survey of Old Testament*, 133)은 준수사항으로 십계명과 언약서와 의식법을 언급하였고, 스투아트(Douglas K. Stuart, *Exodus* NAC 2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439-440)는 준수조항으로 출 20:3-23:19 과 25:1-31:18 을 언급하였다.

기초였다. 동시에 인간의 책임 또한 아담 언약의 이상에서 요구되었다. 하나님은 에덴이란 멋진 동산에 아담을 두신 후에 즉시로 심각한 규정들을 설명하셨다. 창 2:16-17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창 2:16-17)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낙원에서조차도 언약의 이상(理想)에는 하나님의 은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었다.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로, 자비로우시게도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홍수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해 주셨다. 창 6:7-8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창 6:7-8) 여호와께서 "내가 창조했던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 언약은 공로 없이 얻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은택과 호의를 인간의 책임과 결합시킨다.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많은 명시적인 규정들을 설명하셨다. 창 9:7 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책임을 상기시키셨다.

(창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편만하고 거기서 번성하라.

이렇게 노아 언약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온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특별한 언약들을 잠시 살펴보자. 여러분은 이스라엘과의 첫 번째 언약이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 맺어진 것임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언약에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족속을 선택하셔서 지상의 모든 족속보다 더 복받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자비를 보이시며 창 12:2-3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창 12:2-3)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언약의 이상에서 핵심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책임 또한 아브라함 언약의 이상(理想)에서 필수 요소이다. 족장 아브라함의 책임은 많은 경우에 표면화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창 17:1-2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창 17:1-2)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에도 인간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에 관해서는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릇된 인상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 언약이 행위 중심적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십계명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들의 서문들과 아주 비슷하게 역사적 서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어느 계명도 주어지기 전인 출 20: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출 20:2)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종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에 근거한 기대였다. 물론 인간의 책임이란 다른 측면도 모세 언약에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 출 19:5 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출 19:5)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에 참으로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보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 언약의 이상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책임과 결합되어 있었다.

다윗과의 왕조 언약도 하나님의 은택에 초점을 맞추었다. 삼하 7:8 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삼하 7:8) 나는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하나님은 그분이 다윗 안에서 보신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윗 가문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영원한 왕조가 되도록 선택하셨다. 다윗 왕조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인간의 충성에 대한 요구를 결합시키셨다. 충성의 요구들이 시 89:30-32 에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 들어보라.

**(시 89:30-32) 만일 그[=다윗]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매로 그들의 범죄를 벌하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그분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며 그분께 충성하기를 기대하셨다.

언약의 이상(理想)의 두 측면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통해 도래할 것을 예언했던 새 언약에서도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엡 2:8-10 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

**(엡 2:8-9) 너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곧 새 언약)의 기초이다. 그러나 이제 엡 2:10 의 말씀을 들어보라.

**(엡 2:10)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도록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새 언약의 이상에는 선행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서 어떻게 선지자들이 언약의 이러한 구조들에 의지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 **B. 선지자들의 사역(PROPHETIC MINISTRY)**

한편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자비로우신 행위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의 책임에 그들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충성스러운 섬김의 요구를 상기시켰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란 유형 공동체 안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들은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의 책임을 시험의 근거 혹은 검증의 근거로 다루었다. 언약의 규정들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그들의 마음의 참된 성격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유형 공동체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언약적 책임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적 믿음이 실제로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분께 충성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노골적인 언약 위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시험은 참으로 무형적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밝혀 주었다. 이들은 영원히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구원적 믿음을 행사했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심지어 선지자들도 신약이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검증하라고 여러 번 도전했다는 것이다. 계 2:7의 말씀을 들어보라.

**(계 2:7 개역개정)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종류의 주제, 곧 우리가 참으로 구원적 믿음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선지서 전체에서도 흐르는 주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실을 말하면 선지자들은 순종과 충성의 모든 행위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 가르침으로부터도 이 사실, 곧 백성이 주님께 충성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켜 준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의 모든 행위 배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과 충성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탐구하며 우리는 언약의 이상(理想)의 두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두 번째 주제인 언약의 심판에 돌려보자.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언약의 삶의 역학적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 III. 언약의 심판(COVENANT JUDGMENT)

전 세계에는 많은 형태의 인간 정부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 정부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그 영토의 국민이 모든 법을 지키지는 않을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범죄와 처벌의 제도를 수립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인임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반역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제도를 세우셨다. 선지자들은 이 심판의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은 언약의 사자들이었다. 선지자들은 백성의 범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주실 형벌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선지자들이 심판의 사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내리신 언약 심판의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선언했던 심판의 유형들을 탐구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 심판들이 이르게 되는 과정을 탐구할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노골적으로 어긴 자들을 향해 경고했던 심판의 유형들을 살펴보자.

## A. 심판의 유형들(TYPES OF JUDGMENT)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경고했던 심판의 유형들을 창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해야 할 심판의 종류들에 대한 명부들이나 목록들을 찾았다. 선지자들의 어휘는 그들이 자주 모세의 책들에 나오는 구절들에 의존했음을 보여준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심판의 종류를 열거할 때 참고한 다섯 개의 주요한 구절이 있다. 신 4:25-28; 28:15-68; 29:16-29; 32:15-43 그리고 레 26:14-39 등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내리실 심판의 유형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 구절들에는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말하는 것을 요약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모세가 이 구절들을 쓴 것은 백성에게 언약의 심판에 두 가지 기본적인 범주가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1. 자연계를 통한 심판(Judgment in Nature)

언약의 심판의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죄에 대하여 자연계를 통한 심판으로 반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로부터 그분의 복을 제거하심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경고하셨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복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반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이 복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 유형적 언약 공동체에게 어떤 종류의 자연계의 심판들이 임할 것인가? 신명기 4장, 28장, 29장, 32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어도 여섯 가지 주요한 유형의 자연계의 심판을 열거한다. 첫째로, 모세의 책에 들어있는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보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 이 가뭄은 땅을 마르게 할 것이므로 백성은 심히 고통을 당할 것이고 역병이 있을 것이다. 백성이 주님께 노골적으로 반역할 때, 기근도 역시 임하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질병이 그들에게 임하므로 그들은 열병, 종기, 종양, 염병 등에

시달릴 것이다. 야생 동물들은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이고 인구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불임과 요절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동물과 인간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이런 종류의 언약 심판들을 언급했다. 그들은 자주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 재앙을 보내시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학 1:9-11 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학 1:9-11 개역개정)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자주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심판이 자연계에 임할 것임을 선언하도록 하셨다.

## 2. 전쟁을 통한 심판(Judgment in Warfare)

자연계를 통한 심판 이외에도, 우리는 선지자들이 전쟁을 통한 심판을 선언했던 것도 발견한다. 전쟁이 자주 기근과 질병 같은 자연적 참사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언약 심판의 한 유형으로서 그분의 백성에게 적군을 보내시는 것도 말씀하셨다. 모세의 글에는 많은 전쟁 주제가 나온다. 신명기 4, 28, 29, 32 장 그리고 레위기 26 장에서 우리는 적어도 전쟁을 통한 심판의 다섯 가지 중요한 범주를 발견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적군의 공격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그들의 성들은 포위당할 것이다. 성읍들이 적군에 의해 에워싸여 그 주민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셋째로, 적군에 의해 땅이 점령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다스릴 것이다. 넷째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은 전쟁을 통한 언약의 저주들 중 하나이다. 다섯째로, 모든 저주들 중에서 가장 나쁜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반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들에 의해 패배할 것이라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면, 선지자 미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1:16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국외 추방에 대한 말씀을 읽는다.

(미 1:16) 네 기뻐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이는 그들이 네 곁을 떠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심판과 전쟁의 위협은 구약 선지서 전반에 걸쳐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약 심판의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 곧 자연 재앙들과 전쟁을 선언했던 것을 살펴보았다.<sup>4</sup>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이런 유형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분이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과정을 고찰해보자.

## B. 심판의 과정(PROCESS OF JUDGMENT)

선지자들은 어떤 심판의 과정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는가? 선지자들은 주로 레 26:14-39 에서 심판의 과정을 배웠다. 이 단락에서 모세는 심판을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특별한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 단락을 검토하며 우리는 이런 심판들이 임할 방식을 지배하는 적어도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보이실 것이다. 그러나 임하는 심판들은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들은 한 특별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인내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

<sup>4</sup> [역자 주] 피와 스튜아트(Fee and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168)는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 문자 "d"로 시작하는 열 가지 심판을 말했다. (10 corporate curses: 10 d-word punishments): Death, disease, drought, dearth, danger, destruction, defeat, deportation, destitution, disgrace 죽음, 질병, 가뭄(한발), 기근(식량 부족), 위험, 파멸(파괴), 패전, 국외 추방(포로 생활), 빈곤(자원 결핍, 극빈), 치욕(수치)

## 1. 하나님의 인내(Divine Patience)

레위기 26 장 14-39 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그들에게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반역할 것이고 완고해져서 회개하기를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매우 인내하실 것임을 알려주었다. 레 26:14-39 은 5 개의 주요 부분, 곧 14-17 절, 18-20 절, 21-22 절, 23-26 절 그리고 27-39 절로 나눌 수 있다. 이 부분들은 각각 "너희가 나에게 청종하지 않으면 . . ."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나온다.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않으면"이란 어구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심으로써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하셨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가장 간결한 묘사는 구약의 선지서 안에 나온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며 요엘서 2 장에서 하나님의 인내심에 관하여 말했다. 율 2:13 에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율 2:13 개역개정)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들은 언약의 심판을 매우 굳세게 믿었지만, 여호와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인내심이 매우 많으시다는 것도 믿었다.

레위기 26 장에 나오는 언약 심판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원리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심판들이 점점 더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 2. 증대되는 가혹성(Increasing Severity)

레위기 26 장의 다섯 부분이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똑같이, 그것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의 가혹성을 증대시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레 26:18, 21, 24, 28 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경고하신다. 곧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께 계속 반역하면 심판들을 일곱 배나 더 증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레위기 26 장의 이러한 차원은 언약 심판들이 정도가 조절되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때때로 선지자들은 비교적 작은 심판들에 대하여 경고했고, 그 다음으로 나중에 다가올 더 큰 심판들에 대하여 경고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 38:1 에서 다음과 같은 한 작은 심판을 읽는다.

**(사 38:1) 네가 곧 죽을 것이니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 자신은 이것이 자기에 대한 큰 언약 심판이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서 단지 한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복종하기를 거절했을 때, 이사야는 왕이 앗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일지라도 왕에게 훨씬 더 가혹한 심판을 전했다. 이사야는 왕에게 언젠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나라 전체를 정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 39:6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사 39:6)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이 . . . 바벨론으로 옮겨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진술은 히스기야의 신변에 대한 위협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그것은 나라 전체에 대한 위협이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동일한 패턴을 따르곤 했다. 그들은 점점 가혹해지는 심판들에 대하여 말하곤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첫 번째 원리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점점 더 가혹해지는 언약 심판을 내리신다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절정이 본토로부터 추방하는 것이라는 세 번째 원리도 발견한다.

### **3. 특별한 절정(Particular Climax)**

언약 심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 레 26:27-39 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가장 나쁜 심판이 땅의 완전한 황폐와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레 26:33 에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레 26:33 개역개정)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흠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구약의 신자들의 머릿속에서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나님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이셨는데, 이제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우리가 성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시겠다고 거듭 경고하셨다. 예를 들면, 암 5:26-27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암 5:26-27 개역개정)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비록 모세가 레위기 26 장과 다른 여러 구절에서 국외 추방에 대한 위협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것을 믿기 어려운 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유행했다. 적어도 예루살렘은 온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백성들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이 인간의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있던 마지막 해들에도 예레미야가 그 성과 성전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언해야 했던 이유였다. 렘 7:13-15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렘 7:13-15 개역개정)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자비로우시다. 그분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분은 화가 나서 진노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정말로 심판하시지만,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심판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심판임을 알게 된다.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다루는 이번 강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언약의 이상과 언약의 심판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의 논의의 세 번째 요소인 언약의 복들을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복들을 부어 주시는가?

#### **IV. 언약의 복들(COVENANT BLESSINGS)**

당신은 상대방이 그냥 놓아주지 않는 우정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당신이 멀리 이사를 가고 편지를 받고 답장하는 것을 잊어버린 후에조차도 편지가 계속 오거나 전화가 와서 다시 당신의 신실한 친구가 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내 당신과 붙어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여호와와 그분의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가혹하게 심판하실 것을 알았지만, 여호와께서 결코 자신의 언약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실 것 또한 알고 선포했다.

언약의 삶의 이러한 측면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심판을 고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고려 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언약의 복의 유형들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언약의 복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A. 복들의 유형들(TYPES OF BLESSINGS)**

복들은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이 충성하려고 애쓸 때 임한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완전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반역하지 않기를 참으로 기대하신다. 언약 백성이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

## 1. 자연계에서의 복(Blessing in Nature)

복들의 첫 번째 범주는 자연계를 통한 복이다. 모세는 자연계를 통한 심판에 대하여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통해 올 복에 대해서도 말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연계의 복들을 주실 것임을 알려주었다. 이런 종류의 주제는 신명기 4 장, 28 장, 30 장과 레위기 26 장에서 적어도 네 가지 방식으로 나온다. 첫째로, 모세는 풍성한 농산물에 대하여 말했다. 그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께 충성하면 받은 농작물로 가득 찰 것이다. 둘째로, 모세는 다산하는 가축에 대하여 말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 가축은 거대한 수로 늘어날 것이다. 셋째로, 건강과 번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 것이다. 그들은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을 누릴 것이다. 넷째로, 이와 더불어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증가하므로 약속의 땅은 그들로 가득 찰 것이다.

자연계를 통한 복들의 선언으로 인해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란 낙원에 그들을 두셨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은 죄 때문에 거기서 인간을 쫓아내셨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자신에게 충성할 때 그들에게 자연계를 통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태초에 인간이 갖도록 의도하셨던 종류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자연계의 풍성한 복들에 대하여 말했다. 한 가지 예를 들테니 잘 들어보라. 율 2:22-23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율 2:22-23 개역개정)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와 매우 흡사하게 스가랴는 자기 시대의 백성이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스 8:12 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속 8:12) 씨앗은 잘 자라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 2. 전쟁에서의 복(Blessing in Warfare)

첫 번째 유형의 언약의 복들이 자연계에서의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선지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두 번째 주요 범주의 복은 전쟁에서의 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전쟁에서 패배하였던 것처럼 언약의 복들 아래 있을 때 승리와 평강을 경험했다. 이 주제는 신명기 4장, 28장, 30장과 레위기 26장에서 적어도 네 가지 방식으로 나온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적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전쟁이 끝날 것이다. 셋째로, 열국들과의 적대감이 사라지고 모든 파괴로부터 구출받을 것이다. 넷째로, 물론, 약속의 땅으로부터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의 귀환이 있을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주 전쟁에서의 이러한 종류의 복들에 대하여 말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적 성공에 대한 위대한 미래를 어떻게 예언했는지 잘 들어보라. 암 9:11-12 에서 아모스는 후포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

(암 9:11-12 개역개정)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대립과 분쟁의 세상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다윗의 집이 모든 호전적인 적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미 4:3 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승리의 결과로 큰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 4:3 개역개정)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지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지자들은 심판과 죄에 관하여 말할 부정적인 것이

많았을지만, 그들은 또한 회개와 충성이 자연계와 전쟁에서의 큰 복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sup>5</sup>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실 복들의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복들이 임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 B. 복들의 과정(PROCESS OF BLESSINGS)

심판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복의 과정도 있다. 하나님의 복의 과정을 지배하는 원리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복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온다. 둘째로, 오는 복들의 정도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들의 절정이 있다.

### 1. 은혜(Grace)

현대 기독교인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의 구원을 얻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로움을 얻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갖고 있는 일은 너무 흔하다. 이보다 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없다. 선지자들은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행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호 14:1-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호 14:1-2 새번역)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호세아가 그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만이 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언약의 복의 기초로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용서를 구했다.

---

<sup>5</sup> [역자 주] 피와 스튜아트(Fee and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168)는 복을 여섯 가지로 요약했다. (6 corporate blessings): life, health, prosperity, agricultural abundance, respect, safety 생명, 건강, 번영, 농작물의 풍성함, 존경, 안전

## 2. 정도들(Degrees)

언약의 복들을 지배하는 두 번째 원리는 그것들의 정도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심판의 정도가 다르게 임했듯이, 우리는 더 작은 복들과 더 큰 복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선지자들은 저울의 더 낮은 끝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비교적 작은 자비로우신 행위들에 대하여 말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곧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작은 복을 선언했다. 사 38:5 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 38:5 개역개정)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다

상당히 많은 예언들은 이러한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종류의 복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서 선지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실 커다란 국가적 복들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면, 주전 701 년에 앗수르인들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의 성문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사 37:34-35 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대패(大敗)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사 37:34-35 개역개정)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복이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에게 선언하셨던 더 작은 복들과 더 큰 복들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절정(Climax)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정도와 더불어, 언약의 복들을 지배하는 세 번째 원리는 남은 자들의 회복이란 절정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큰 심판이 임하더라도 항상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남은 자는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매우 클 수도 있고 매우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그 남은 자에 기초하여 일을 추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렘 5:18 에서 그는 백성에게 남은 자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렘 5:18)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남은 자의 존속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남은 자를 통해 모든 복들 중 가장 큰 복을 내리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26 장으로부터 최악의 언약 저주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레위기 26:40-45 과 신명기 4 장과 30 장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그 남은 자를 본토로 데려오시고, 그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모세가 신 30:4-5 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진술했는지 들어보라.

**(신 30:4-5 개역개정)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남은 자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는 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나온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남은 자에게 자연계에서의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렘 23:3 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렘 23:3 개역개정)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와 매우 흡사하게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는 또한 전쟁에서의 큰 복도 받을 것이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 이 남은 자가 큰

승리와 지속적인 평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욥 3:9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욥 3:9 개역개정)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욥 3:17 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하여 읽는다.

(욥 3:17 개역개정)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번역 비교: (새번역/공동번역)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요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안전하게 세울 전쟁에서의 큰 승리에 대하여 말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의 회복을 고대했다. 하나님께서는 국외 추방이란 가장 큰 형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회복이란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V. 결론(CONCLUSION)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선지자들이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탐구하며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로, 우리는 언약의 이상들, 곧 하나님의 은택과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개인적 수준의 심판으로부터 국외 추방이라는 대심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심판에 대하여 경고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작은 규모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포로기 이후에 대회복을 가져오실 것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제들, 이러한 역학적 원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을 인도했다. 그러므로 이 주제들은 또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연구할 때도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

